

# 소련, 방위산업 개혁 요구

Monday, August 1, 1988 DEFENSE NEWS 3

## Perestroika Makes Demands on Soviet Defense Industry

### Gorbachev Calls for Cost-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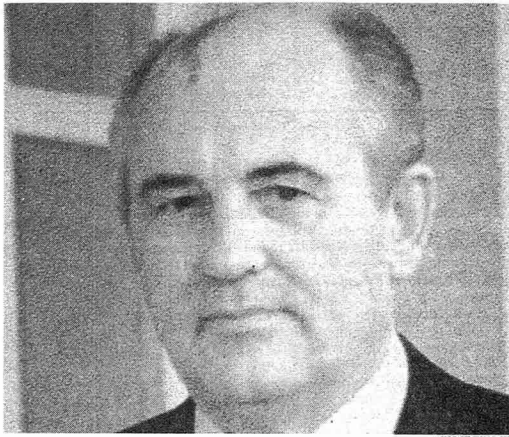
By SERGIO ROSSI  
Defense News Correspondent

MOSCOW —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s program to reshape the economy will not spare the defense industry. In fact, Gorbachev's *perestroika*, or economic reconstruction, will demand that the Soviet defense industry become more efficient and integrated with civilian industry.

The Soviet leader underscored his point last Thursday during a Moscow factory tour when he called for the same kind of mobilization of resources for consumer industries as has been the case with defense industries. Gorbachev's original challenge to the defense industry came during the 19th All-Union Party Conference, June 28-July 2, when he told the conference's 5,000 delegates that putting consumer goods on the shelves will require contributions from both light industry as well as the heavy industries now largely dedicated to defense.

"We must create a powerful up-to-date consumer industry as soon as possible. This applies not only to light industries, but also to defense factories and enterprises of the heavy industry, whose contribution to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consumer goods has got to be visibly enhanced," Gorbachev said during his closing address to the conference.

He also said industry in the Soviet Union must be as concerned about the quality of products as it is about the quantity.



Mikhail Gorbachev told the Soviet Union's All-Union Party Conference

that economic reconstruction would apply to defense factories as well as 'light' industries.

Economic reform in the Soviet Union will involve that nation's defense industry because industries with defense and civilian use will have to devote more of their energies to increasing the quality and variety of consumer goods.

Sources in Moscow say Gorbachev's intention is to make de-

fense industries more accountable for the way they spend resources, thereby freeing up capital for the civilian sector. According to Defense Intelligence Agency analyses, at least one-third of the Soviet shipbuilding, aircraft and electronic output goes to the civilian sector.

In addition, Soviet defense industry will have to become more cost-conscious, taking advantage of technology and avoiding waste, a chronic problem throughout the Soviet economy. Gorbachev, who has held the reigns of political power in the Soviet Union since March 1985,

said the effectiveness of the defense industry "must be assured primarily" by emphasis on technological improvements. He also reiterated the Soviet Union's commitment to a defensive doctrine.

In his address to the Party conference in the Kremlin, Gorbachev listed the industries that need overhaul and rapid acceleration, including microelectronics, robotics, information science and biotechnology.

Sources in Moscow say Gorbachev's *perestroika* will look westward to Hungary as a model for change. In particular, they say there is a strong appeal for Hungary's New Economic Mechanism, which involves factory self-management, greater reliance on free market forces, decentraliz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 and less reliance on artificial price supports.

Some of these principles likely will be part of Gorbachev's restructuring of light industry as well as the defense sector, sources say.

This means defense factories will have to make their operations more efficient. As in all industry, they will need to justify claims for more financial resources in an economy that is strapped for raw materials, manpower and investment.

This process may cover nine Soviet ministries, some 140 main plants for the manufacturing of weapon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 as well as 3,500 minor plants and factories throughout the Soviet Union that work directly or indirectly as subcontractors for the national defense.

### 고르바초프 '原價意識' 강조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계획에는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즉 경제개혁에 따르면, 소련의 방위산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고 民需산업과 통합될수 있어야 한다.

고르바초프書記長은 지난 7월28일의 공장시찰에서, 방위산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類型의 資源動員이 소비재 산업에도 요망된다는 그의 견해를 강조하였다.

고르바초프는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열린 제19회 全소련공산당협의회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최초의 견해표명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5천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소비재물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防産을 위주로 한 중공업뿐만 아니라 경공업부문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강력하고 현대적인 소비재 산업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것은 경공업뿐 아니라 중공업 및 방산업체에도 적용되며, 소비재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이들 부문의 기여가 뚜렷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고르바초프는 대회 폐막연설에서 말하였다.

또한 소련의 업체가 량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제품의 質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소련의 경제개혁에는 국가의 방위산업도 포함되는데, 이는 軍需 및 民需업체들이 소비재의 품질과 다양함을 증대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의 소식통에 따르면 고르바초프의 의도는 방산업체들이 資源소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민간분야를 위한 자금사용이 원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國防情報사령부(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의 造船, 航空 및 電子 부문 생산고의 최소한 3분의 1정도가 민간분야로 들어가게 된다. 덧붙여 소련의 방위산업은 소련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인 낭비를 제거하고 기술을 이용하면서 原價意識을 더욱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1985년 3월이래 소련의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해온 고르바초프는 방위산업의 효율성이 기술증진에 역점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크레믈린에서 있는 黨협회의의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微小電子분야, 로봇공학, 정보과학 및 생물공학분야를 포함하여 정비 및 급속한

촉진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열거하였다.

모스크바의 소식통에 따르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헝가리를 변화의 모델로 삼고 있다. 특히 공장자율관리, 자유시장세력에 더 많은 의존,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인위적인 가격지지에 대한 의존 감소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헝가리의 新경제조직(New Economic Mechanism)에 강한 호감을 갖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원칙중 몇몇은 방산분야뿐 아니라 경공업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의 일부가 될 것 같다.

이것은 방산업체들이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원료, 인력 및 투자로 制約을 받고 있는 경제내에서 더 많은 재정자원에 대한 권리주장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는 소련의 9개 정부 부서, 소련 전역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국가방위를 위한 副계약업체로 운영되는 3천5백여의 副공장과 무기체제 및 관련부품을 제작하는 1백40여 主工場등이 포함되어 있다.\*

〈Defense News 1988. 8. 1〉

一笑一少一怒一老

저녁까지 停電

어떤 가정집에 진공청소기 세일즈맨이 찾아와 상품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세일즈맨은 먼저 거실 양탄자 위에 커피 찌꺼기와 먼지, 흙 등을 마구 흩뿌린다음 의기양양하게 말하였다.

『아주머니, 만약 이 진공청소기가 치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말끔히 먹어 치우겠습니다.』

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부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니요?』

영문을 몰라 되묻는 세일즈맨에게 가정주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순가락을 갖다 드리려구요. 우리 동네는 저녁까지 停電이거든요.」